



차영호 simplelifeuk@yahoo.co.uk | KCC정보통신 근무 당시인 지난 99년에 영국으로 건너간 이후 현재는 런던의 토탈콤스에서 수석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집과 직장이 모두 습하고 어두운 런던에 위치하자 가끔 햇볕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신이 난다고. 이제는 비가 와도 우산 쓸 생각을 하지 않는 완전한 Londoner로, 5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퇴근을 한다.

연재순서

1회 | 2006.2 | 영국식 채용 방식에 적응하기

2회 | 영국에서 개발자로 일한다는 것

체험 IT 해외취업 - 영국편

영국식 채용 방식에 적응하기



최근 들어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사설 학원들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는 일본 쪽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 등에 나가 현지 기업에 취업해 나름대로의 입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취업에 성공했을까. 해외 취업의 실상을 살펴보는 첫 순서는 영국이다.

필자는 지난 99년에 영국으로 건너온 이후 7년째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낯설기만 하던 영국 사람들과 영국 거리가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긴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하다. 최근 국내 개발자 사이에서는 해외 취업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한다. 지금부터 풀어낼 이야기들은 필자가 영국에 취업하고 일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들이다.

필자는 학생 때부터 해외 유학과 취업에 관심이 많았다. 실제 유학을 가기 위해 뉴욕에 여행을 다녀 온 적도 있었다. 당시 뉴욕의 광활한 고속도로와 큰 차들, 널찍한 정원이 달린 주택 풍경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던 중 지난 1999년에 KCC정보통신을 통해 해외 인턴사원으로 영국에 파견됐다. 당시는 IMF 경제위기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월급의 반을 지원하는 해외 인턴 파견 사업이 많이 실시됐었고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에 건너온 것이다. 사실 처음 지원한 곳은 미국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국이나 유럽은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매우 먼 나라이고 외국이라고 하면 습관처럼 미국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미국 사무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얼떨결에 영국 지사로 파견됐고 그 때부터 영국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작고 불편하지만 포근한 영국

그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영국과 미국이 영어도 같이 쓰고 인종도

비슷하니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뉴욕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넓고 쾌적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처음 영국에 도착해 임시 숙소로 가는 길은 지금도 기억한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밀집한 주택가에나 있을 법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우리나라 1970년대에나 봄직한 거리의 빼그덕거리는 B&B (Bed & Breakfast, 아침이 제공되는 저렴한 여인숙)였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5월의 어느 날, 필자의 영국 생활은 캄덴타운(Camden Town)에서 그렇게 시작됐다.

잠깐 날씨 이야기를 하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영국은 비가 많이 내린다. 겨울이 우기인데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10월말부터 다시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3월 말을 지나 거의 6월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 우리나라처럼 소나기는 아니고 가랑비와 이슬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하루종일 반복한다. 이런 날씨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또한 영국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노후됐다. 필자가 처음 일했던 퀸 빅토리아 거리(Queen Victoria Street, 영국 금융의 중심지인 City of London에 위치)에 있는 알버트(Albert) 빌딩은 120년 전에 호텔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처럼 영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작고 불편하다. 도로도 좁고 집도 작고 비도 자주 오고 집이나 가구들도 멋있기는 하지

만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계속 생활하다보면 오랜 전통이 주는 고즈넉한 멋이 있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친근감이 생긴다.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아 이제는 자연물과 흡사해진 공원의 담벼락에는 묘한 포근함이 서려 있다.

이렇게 시작한 영국 생활에서 필자는 City Of London에서 금융 관련 패키지 유지보수 작업을 맡았다. 이후 SDS 영국법인, 기아(KIA) 영국법인을 거쳐 지난 해부터는 '토타잡스(Totaljobs, 영국에서는 '줍스'라고 읽는다)'라는 고용전문 에이전시(Recruitment Agency)의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

영국에서 직장 구하기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필자는 한국에서 인턴사원으로 파견돼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SDS 영국법인부터는 스스로 직장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개발자로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은 개인과 기업이 처음부터 직접 만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고용은 토타잡스나 잡서브(Jobserve), 몬스터(Monster)와 같은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자가 CV(Curriculum Vitae, 미국에서 이력서(resume)라고 하는 것)를 만들어 에이전시에 등록하면 에이전트가 이를 검토해 고객사들이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지 확인한다. 적절한 CV라고 판단되면 기업과 지원자들 사이에서 조정하며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CV 작성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작성해야 한다. 서류심사(CV Screening)를 통과해 인터뷰까지 가면 실제 채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필자의 경우 CV가 통과돼 인터뷰까지 본 경우 40~50% 정도는 채용 제안(Job Offer)을 받았다.

필자는 영문 CV를 작성할 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레이아웃을 잡는다. 먼저 이름과 연락처, 둘째 주요 사용 기술과 경험 요약, 세번째 직장 경력 상세 기술(Career Achievements, 가장 최근 경력부터 시작해서 일했던 기업명과 주소, 맡았던 역할과 직급, 또 사용했던 기술에 대한 상술),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가장 공들여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수료와 보유 자격증(Education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격, 사용 기술,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CV 작성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2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조언한다. 그러나 실제로 몇 번 작성해보면 다양한 IT 경력과 프로젝트를 2페이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우연히 인도 친구들의 CV를 보니 5페이지가 넘는 것도 있었다. 그때부터 필자도 페이지에 관계없이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상 2페이지의 간략한 CV보다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레퍼

런스까지 달아놓은 CV를 업체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가장 최근 CV는 6페이지다('이달의 디스켓'으로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2 CV를 고용전문 웹 사이트 또는 에이전시에 등록

요즘은 대부분이 온라인 에이전시이다. 필자가 주로 이용한 사이트는 www.totaljobs.co.uk, www.jobserve.co.uk, www.monster.co.uk이다. 고용전문 웹 사이트의 경우 실제 고용인을 찾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고용 에이전시들이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고용 포탈이다. 이곳에 CV를 등록하면 이를 보고 에이전시들이 연락을 한다. CV 내용과 경력 사항이 좋다면 여러 군데서 거의 매일 연락이 온다. 온라인으로 CV를 등록할 때는 MS 워드로 된 CV를 첨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형식에 맞춘 온라인 폼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영국 혹은 유럽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물어보는데 한국인이니 당연히 '없다'고 표시하면 고용회사 측에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

3 에이전시와의 전화 인터뷰

CV를 검토한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와 CV에 있는 내용이나 그 외 기타 사항들을 확인한다. 현재 연봉 수준과 희망 연봉도 묻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수 문제는 솔직해야 한다. 또한 에이전시의 질문 항목에는 대부분 현재 직장이 있는지 그리고 왜 옮기고자 하는지가 들어 있다. 필자의 경우 일하던 부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길 예정이어서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또는 일이 너무 재미없어서 등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I think it is due time to progress for new challenge and opportunity"라고 많이 답변한다. 에이전시와의 전화 인터뷰가 잘 되면 이때 비로소 CV가 실제 고용을 원하는 기업에게 전달된다.

4 고용업체와의 전화 인터뷰

고용기업에서 CV를 보고 마음에 들면 에이전시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한다. 물론 업체로부터 직접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먼저 전화 인터뷰를 한다. 소규모 회사나 아직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면접(face-to-face)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 인터뷰는 대부분 기술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 필자가 가장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는 C#과 ASP.Net, SQL, OOP와 관련해 40문제 정도를 담했다. 다국적 IT 전문 서비스 기업인 소트웍스(Thoughtworks)와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는 폴리모프즘(polymorphism)과 디자인 패턴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5 기술 시험

전화 인터뷰를 통과하면 기술 시험을 보게 된다. XP 컨설팅으로 유명한 소트웍스의 경우 4가지 문제를 주며 TDD 방식으로 xUnit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필자의 경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문자 그대로 '물을 먹었다'. 토타잡스는 직접 와서 4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코딩하도록 했다.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아서 SQL DB의 한 테이블을 가지고 CRUD(Create, Read, Update, and Delete)를 구현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가능한 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엔터프라이즈급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속도를 위해 DB 액세스 쪽은 SP를 사용하고 어셈블리는 signing

하고 네이어로 계층별로 COM+를 이용하고 별도의 웹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처음에는 쉽다 생각했는데 막상 항상 쓰던 프레임워크없이 '날코딩' 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4시간 후에는 선임 개발자가 와서 함께 코딩을 검토하며 점수를 매겼다.

6 최종 인터뷰

기술 시험 결과가 마음에 들면 최종 인터뷰에 초청받는다. 기술 시험 직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별도로 연락하기도 한다. 보통 최종 인터뷰의 경우 기술 부서의 최종 책임자가 참석한다. 토달잡스의 경우 필자의 매니저가 될 PM과 CTO가 함께 들어왔는데 수석 개발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이미 인터뷰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7 채용 제안

최종 인터뷰를 통과하면 채용 제안을 받는다. 이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희망 급여를 물어보며(그 전에도 여러 번 물어본다)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하고 싶다고 한다. 조건을 판단해 마음에 들면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필자의 경우 원했던 희망급여보다 지원했던 포지션의 최저 급여가 높아 자동으로 더 많이 받게 됐다. 역시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영국 회사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기업이었다면 심층팔구 월급을 깎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하다. 이는 영국 기업이 외국인용 고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외국인이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데에는 약 250파운드(45만원)의 신청료가 들고 변호사를 쓸 경우 1500~2000파운드(270~360만원) 정도 수입료가 들어간다. 물론 비용은 고용업체에서 부담한다. 발급 기간은 15일에서 최장 100일까지 걸린다. 이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면 고용업체에서는 당연히 노동허가서가 필요없는 영국인이나 유럽인을 선호한다. 그러나 IT 분야는 워낙 외국인이 많아서 (특히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는 인도인들이 매우 많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일했던 SDS 영국법인의 경우 팀 전체가 총 4명인데 필자를 제외한 3명이 인도인이었다.

국내에서 영국 취업 준비하기

만약 필자처럼 과전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영국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영국에서 취직을 하려면 먼저 영국에 와야 한다. 인터뷰 요청이 올 때마다 국제전화로 인터뷰하고 비행기타고 날아갈 수는 없다. 필자가 그동안 직접 경험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영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영국에 와야 한다. 어학 1년 과정을 등록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있으면 더 좋다. 가고는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안된다면 일단 와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 된다. 패스트푸드 점 등에 여러 일자리가 있고 또 학생으로 오면 합법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조금 여유가 된다면 유학을 오는 방법이 좋지만 일부러 학교를 다시 다닐 필요는 없다. 요컨대 1년 정도 합법적으로 영어공부를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어떤 경로로든 영국에 왔으면 NI(National Insurance, 국민연금) 번호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NI 번호가 필요하다. 파트타임 일의 경우 노동허가서는 필요없다. NI는 쉽게 받을 수 있으니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나중에 풀 타임 일을 지원할 때 NI조차 없으면 안되므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제 지속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지원하며 실력을 갈고 닦는다. 열심히 CV도 작성하고 인터뷰 예상문제도 암기하고 연습하며 준비한다. 또 틈틈이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고 컴퓨터 공부도 해놓는다. 자격증을 준비해 놓는 것도 좋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므로 실제 취업시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영국 회사로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한국회사의 현 지법인에 취직할 수도 있다. 코리아 위클리(Korea Weekly, www.koweekly.co.uk) 같은 교민지를 꾸준히 보면 의외로 구인광고가 자주 나온다. 또 에이전시로부터 연락을 받으려면 휴대폰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혹시 국내에서 MS 기술을 다뤄본 경험



이 있다면 OOP 공부를 추천한다. 영국의 프로그래머들은 빈번하게 업그レード되는 벤더 종속적인 기술보다 OOP와 같은 기반 기술에 강하다. 인터뷰나 코드 리뷰시 OOP 내공이 뽐어나오는 코드를 작성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양복이 사라지고 야구공이 날아다니는 사무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영국 기업들의 사무실 모습은 어떨까.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국내 기업들과 대비되는 영국 기업만의 혹은 영국 IT 개발팀 만의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영국에서 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도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개발팀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영국의 일반적인 기업문화가 우리나라의 개발팀 정도라고 하면 딱 맞다. 먼저 영국에서는 양복을 거의 입지 않는다. 영국 정서상 양복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복장이다. 교사도 교수도 변호사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양복은 금융계와 같은 전통적인 업계나 입는다. 필자가 일하는 직장의 경우도 세일즈 파트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특별히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아닌 한 캐주얼을 입는다.

옷이 자유로우니 미팅 분위기도 유연하다. 한 번은 미팅을 하는데 한 참석자가 갑자기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더니 머리를 기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더 피곤한지 팔을 펴서 머리를 아예 테이블에 댔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화하는 도중이나 미팅 중 참석자들의 자세는 필자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혼나던 바로 그런 자세들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 책상에는 업무와 상관없는 장난감이나 개인적인 물건들을 많이 늘어져 있다. 실제로 필자 옆에서 일하는 닐(Neil)이라는 친구는 작은 장난감 농구골대를 벽에 붙여놓고 있다. 덕분에(?) 수시로 이쪽저쪽에서 공들이 날라오고 그 중 대부분은 골대를 빗나가거나 튀어 필자나 개발팀장(Lead Developer), 혹은 키보드에 부딪히곤 한다. 이 친구 책상에는 권투 글러브도 있는데 사람들이 닐과 얘기하러 왔다가 다들 한 번씩 손에 껴보고는 휘두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필자 앞에 앉은 조나단(Jonathan)이라는 친구는 크리스마스 런치 때 받은 장난감 야구공 발사기를 갖고 있다. 이 친구는 무척 내성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장난을 치지는 않지만 주로 주위 사람들이 와서 야구공을 대포처럼 여기저기 쏘아 댔다. 아마도 가장 얌전한 것은 필자의 책상일 것이다. 단지 책과 서류들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니 말이다.

영국 사람들과 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널리 쓰는 의사소통 수단은 이메일과 문서다. 애자일(Agile) 신봉자인 필자는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걸 선호하나 영국의 개발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방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다른 사람과 직접 대면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보통 언제가 좋은지 물어본 다음 아웃룩을 통해 별도로 미팅을 잡는다. 한 마디로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영국 회사로 옮기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저녁시간 말고는 조용히 앉아서 일을 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일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상급자한테 불려가고 갑자기 문제가 터져 급하게 처리하는 등 정신이 없었다.

영국 기업의 프로젝트 기간은 비교적 넉넉하게 잡는 편이다. 이곳에서는 '현실적(realistic)' 이라고 한다. 현실을 무시하고 당겨 잡는 경우 '욕심이 과하다(too ambitious)' 라고 한다. 덕분에 프로젝트 중일지라도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평소는 9~10시에 출근해 오후 5~6시에 퇴근한다. 6시 30분 이후에 남아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저녁 8~10시에 퇴근하던 습관 때문에 영국 취업 초기 계속 늦게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으나 7시쯤 되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급속도로 '전투력'이 떨어졌다.

당시 필자에게는 심리적인 이유도 컸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단련된 몸과 마음으로 영국 기업에서도 늦게까지 일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필자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번은 개발팀장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면 다음 날 지장을 주지 않나?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머리로 식힐 겸 일하는 대신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영국 기업에게 절대 감명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실력이 없어 늦게까지 일한다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인터뷰할 때도 나왔다. 인터뷰에 들어왔던 PM이 "당신 자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묻자 필자는 자신있게 "헌신(commitment)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과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주말에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건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가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늦게까지 일하는 것, 주말에도 일하는 것으로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적어도 영국 기업에겐 통하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다른 직장에서 일할 때 집에서 VPN을 통해 회사에 접속해 주말에 일을 하곤 했다. 입사 후 매니저에게 "VPN을 제 노트북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 접속해서 조금씩 일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묻자 "왜 주말에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규정상 VPN은 개인 노트북에 설치할 수는 없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미리 회사에 보고하고 공용 노트북을 빌려가서 쓰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통 주말에는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 평일에는 저녁 8시가 넘으면 건물 전체 문이 잠겨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까지도 미리 얘기해 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영국 회사들이 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할 때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 능통한 스위스 나이프 같은 만능인간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에선 맡은 일만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지는 편이라 계속 공부하면서 일하기 좋다. 필자가 속한 팀의 경우에도 개발자는 필자를 포함해 11명이며 이 중 개발팀장 1명, 4명의 선임 개발자(Senior Developer), 그리고 6명의 일반 개발자로 구성돼 있다. 3명의 PM이 있어서 여러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리드한다. 보통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1명의 PM이 이를 주도하고 PM을 지원하는 선임개발자 1명 그리고 일반 개발자들이 참여한다. 물론 프로젝트가 큰 경우 선임 개발자 2~3명이 참여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일정은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된다. 운영(Operation) 팀이 별도로 있고 여기 소속 개발자가 있어 웹 사이트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개발팀으로 오기 전에 운영팀에서 해결되거나 운영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개발팀 리소스에 할당된

다.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다른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는 없다. UI 담당은 User Experience 팀이 별도로 있어 이쪽에서 설계한다. 보통 User Experience 팀에서 비지오(Visio)로 UI 화면을 설계하고 Use Case까지 초기 디자인하면 개발팀과 이를 계속적으로 협의해 최종 설계가 만들어진다.

DB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팀이 있고 전문 DBA들이 있다. DB 팀에서 스키마가 만들어져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필자가 작업하는 모듈에 관해서서 필자가 일차적으로 스키마를 디자인해 넘기기도 한다. 이 경우 DBA들이 다시 검토해서 작업을 한다. SQL문은 DBA들이 계속해서 리팩토링하면서 효율화시키며 대부분의 쿼리들은 SP로 만들어져 있어 개발팀은 SP를 호출하기만 하면 된다.

물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급여 수준

영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는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 전체적으로 볼 때 급여는 물가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가 물가 대비 실제소득이 더 높다.

〈표 1〉은 영국의 IT 업계 평균임금이다. 괄호 안은 영국 전체 평균이고 나머지는 런던 평균이다. 런던은 물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임금도 더 높다. 더구나 런던은 금융 중심지여서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 관련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컨설턴트들의 임금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만약 컨설턴트가 아니라 개발자로 시작한다면 이보다 조금 낮게 잡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필자가 있는 회사의 경우도 선임 개발자 연봉은 3만 7000파운드(6700만원)부터 시작하며 계속 근무하면서 적절한 성과를 보여주면 매년 협상을 통해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 대략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영국 취업과 영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살펴왔다. 해외 취업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필자 이메일(simplelifeuk@yahoo.co.uk)로 연락주시 바란다. 다음 연재에 관련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소개할 예정이다. **끝**

정리 | 박상훈 | nanugi@imaso.co.kr

〈표 1〉 영국의 IT 업계 평균임금

업무	런던 최저연봉 (전체 최소연봉)	런던 최고연봉 (전체 최고연봉)
.net	£46,690.09 (£40,220.03)	£51,369.14 (?44,511.38)
ASP	£40,870.08 (£35,480.18)	£45,266.72 (?39,601.71)
Business analyst	£52,863.05 (£44,803.45)	£57,699.43 (£49,450.76)
C#	£43,332.47 (£39,253.23)	£47,821.16 (£43,692.81)
C, C+, C++	£51,693.14 (£42,710.56)	£56,429.69 (£47,296.49)
시스코	£49,387.50 (£43,687.16)	£54,026.50 (£48,096.49)
코볼	£45,833.33 (£39,125.00)	£50,832.33 (£43,674.00)
DBA	£41,594.94 (£37,030.53)	£45,948.37 (£41,308.16)
개발자/프로그래머	£45,523.85 (£38,929.89)	£50,081.16 (£43,182.21)
자바	£48,253.88 (£42,620.61)	£52,863.60 (£47,113.49)
매니저	£46,581.50 (£41,067.48)	£51,151.53 (£45,347.25)
MCSE	£38,503.88 (£33,739.26)	£42,921.48 (£37,569.55)
네트워크	£45,417.65 (£38,405.15)	£49,943.71 (£42,467.96)
NT	£46,877.36 (£36,327.96)	£51,338.62 (£40,278.57)
오라클	£49,230.32 (£43,251.25)	£54,038.62 (£47,889.11)
PM	£50,308.78 (£43,932.48)	£55,130.44 (£48,457.12)
Sales	£44,102.30 (£39,206.59)	£48,404.75 (£43,236.72)
SAP	£53,942.62 (£49,346.73)	£58,769.49 (£54,104.53)
Sequel	£41,909.87 (£36,943.39)	£46,380.93 (£41,210.76)
기술지원	£41,301.27 (£35,975.51)	£45,629.67 (£39,900.03)
테스터	£43,363.86 (£38,138.10)	£47,974.83 (£42,511.73)
Trainee	£36,544.36 (£32,080.17)	£40,289.23 (£35,593.18)
Trainer	£38,850.91 (£33,461.74)	£43,002.64 (£37,155.63)
유닉스	£47,577.56 (£41,955.15)	£52,363.69 (£46,530.05)
비주얼 베이직	£44,341.63 (£36,708.58)	£48,865.52 (£40,874.57)

